



“만화로 엮은 쉬운 불교책 계속 낼 터”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도서출판 솔바람



사람이 있어 즐겁고 행복한 도서관 솔바람 직원들은 동출스님(오른쪽 두번째)과 함께 오늘도 불서 만드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만화로 엮은 쉬운 불교책을 약 2~30권 정도 낼 계획이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1권이 나왔던 <부처님 생애>의 경우 현재 2·3권 원고를 받아 작업 중이며 올해 안에 4권까지 내는 것이 목표라 한다.

만화 이외에 스님에게 의미 있는 책을 꼽아 달라 부탁하니 우선 10권으로 엮어낸 <불교설법전서>를 보여준다. <불교설법전서>는 행사설법, 교리법문설법 등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발간한 책이다.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스님이나 법사들이 법문을 할 때 이 책을 많이 참고한다며 솔바람의 '효자'로 꼽았다.

반면 출판은 됐으나 스님이 아쉽게 생각하는 책도 있다. 번역서인 <매양 속의 부처>다. 이 책의 경우 10대가 겪는 사랑과 성, 공부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고리타분한 법문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는 데 생각보다 제대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은 이 책을 다시 디자인해서 출판 시장에 내놓을 생각이라 한다.

동출 스님과 이야기 하다 보니 솔바람은 아주 현실적인 출판사라는 것이 느껴진다. 이는 스님의 명함을 봐도 알 수 있다. '솔바람 대표'라는 직함 앞에 '설법연구원'이라는 이름도 함께 기재돼 있다. 솔바람과 설법연구원 모두 동출 스님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곳 모두 간행물을 만들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다. 솔바람에서는 단행본 서적을 주로 만들어 낸다면 설법연구원에서는 <설법>지를 펴내면서 각 사찰의 사보(寺報)를 제작한다. 즉, 단행본만 제작하기 어려운 불교계 출판 현실 속에서 매달 펴내는 <설법>지를 기본으로 한 사보 외주 제작을 함으로써 출판사 수익을 내는 것은 물론 솔바람과 설법연구원 모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은 힘들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사랑' 밖에 없다. 스님도 솔바람의 힘을 직원들과 스님이 서로 신뢰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이직률도 낮아 직원들 연차가 6~7년은 기본이다. 그래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 김용관 편집장에게 힘든 일은 없냐고 솔직

물어봤다.

김 편집장은 "불교출판 기획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한다. 불교를 좀 더 잘 알릴 방법이 없을까 요즘 많이 생각한다. 그러면서 김 편집장의 표정이 밝다. 이유가 있었다.

"불서를 만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불법 속에 들어가게 돼요. 불서 출판사에 일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문득문득 느낍니다."

출판사는 책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다. 책을 만드는 데는 종이, 잉크 등의 물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의 힘이다. 땀 흘려 만든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신뢰가 있고 불서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출판사, 앞날이 밝지 않을까.

글·사진=김강진 기자

솔바람 이름에서 향기가 난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은 느낌. 불서 만드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라. 어떤 일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20년 동안 불서를 만들어왔다면 솔바람이 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 솔바람(대표 동출, 이하 솔바람)은 서울 종로 한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들어서자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이 기자를 맞아 준다. 스님의 출판경력도 솔바람과 함께 20년을 맞았다.

출판사의 성격은 거의 출판사 대표나 편집장에 의해 결정된다. 동출 스님 하면, 종단 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특정이 사찰문화연구원 등에서 일하는 불교계 자원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스님이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떤 책일까.

지금까지 출간한 책을 살펴보니 만화책만 약 5권이 있다. 솔바람이 1989년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출판사업에 뛰어 든 것은 불과 2~3년이다. 그렇게 보면 적지 않은 책이 만화로 출간됐다. 스님은 솔직하게 "만화가 경쟁력 있다"고 말한다. 즉 다른 불교출판사에서 쉬 견드리지 못하는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만화 작가들에게 인세를 많이 주고 출판해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 한다.

"만화가 보기에는 쉬워보여도 제대로 하려면 6개월~1년까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마음 놓고 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요."

도서관 솔바람 불서 BEST 20

순위	책 이름	저자	출판년도
1	불교설법전서(전 10권)	사찰문화연구소	1989
2	구법	정운	2007
3	자타카의 노래	김장열	2007
4	부처님 생애	김정빈 글, 최병용 그림	2007
5	만화 백유경	김장열	2006
6	마음을 밝히려는 60가지 이야기	방정일 글, 김장열 그림	2003
7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정일 글, 김장열 그림	2005
8	하수와 떠수	강병호	2007
9	도를 찾아 고산 고암이	양리 브뤼셀 지음, 임해근 옮김	2006
10	매양 속의 부처	프랜시스 제임스 지음, 진우기 옮김	2006
11	행복해지는 연습	초집 트롬바 지음, 진우기 옮김	2007
12	살림처럼 살아라	페타 최원 지음, 진우기 옮김	2003
13	환희	정운	2007
14	떠남	정운	2007
15	아름답게 배우는 불교	반영규	1998
16	신묘장구대라니 강해	임동근 역저	2002
17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찬우 역저	1998
18	참회정진	도법 역음	1998
19	불서 및 기도 앤솔레 모음집	편집부	2000
20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	이경애 역음	1999

“보다 쉽고 재미있는 책이 화두 ‘불교설법전서’ 솔바람의 효자”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경허법어

경허성우선사법어집 간행회인물연구소1981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가?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것이지, 맑은 정신으로는 할 게 못 돼.”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하신 말씀이다. 경허 스님이 천장사에 계실 때 사람들이 불법도리를 물으면 아무 말씀 없다가, 누구든지 곡자를 올리면 그 곡자를 드시고 난 후 법문을 중언이라도 하셨다. 결국 <경허법어>로 인하여 참선에서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에게 항의하니 말씀하셨다.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것이라고.

이날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날은 어둡고 다리는 아프고 하는 누워있을 때 경허 스님이 말했다. 앞서 가던 경허 스님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것만 알면 세상사 고민이 모두 해결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과연 이 마음, 본마음·참나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참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허 스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화두가 되었다.

결국 <경허법어>로 인하여 참선에서 생사일대사의 궁극적 해결책을 찾게 되었고, 선학을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고, 결국은 출가해서 강원과 선방에 다니고 참선입문서까지 내는 계기가 되었다. 책 한권의 역할이 이토록 엄청난 것이다.



속가 모친께서 벽초 큰 스님께 직접 받아온 책 이 책 읽고 출가해 참선입문서 내는 계기 마련

이 책은 느닷없이 달려들어 여인의 양쪽 귀를 잡고 입술에 반개같이 입을 맞췄다. 여인은 비명과 함께 물동이를 깨뜨리고, 동네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뛰어왔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두 스님이 마을을 멀리 벗어나자, 경허 스님이 말했다.

“내 재주가 어지간하지, 무거운 쌀자루도 있고,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으니 말이야.”

이 밖에도 수많은 무애행이 적혀있는 <경허법어>는 참선에 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만 읽었던 책이,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정신적인 방향 가운데서 마음의 지표를 제시하여 주었다.

‘물동이는 송장이요 망상번뇌 본공(本空)하고, 천진면목 나의 부처,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허다한 신통묘용 분명한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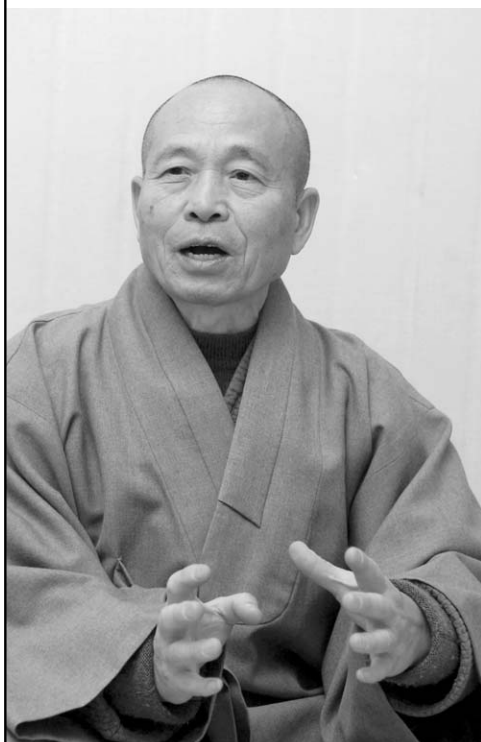
직접 받아온 것이다. 집 책장에 꽂아둔 것을 찾아내 읽은 것이다. 처음에는 알쏭달쏭한 내용들이라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뒤로 가니 경허 스님의 일화들이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결국 인생의 지표가 되었던 것이다.

책이야말로 또 다른 선지식이 아닐까. 나는 비록 경허 스님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경허법어>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간접적인 만남도 때로는 직접적인 만남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만나면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십 권씩 사서 주위 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문을 풀리는 것이다. 직접 살펴볼 수 있다면 간접적이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본인이 읽지 않더라도 책장에 꽂아두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읽어보고 평생의 지침서로 삼을지 알 수 없는 일 아닐까 싶다.

불교강원과정 3기 수강생 모집

부처님법을 만남은 삼천년에 한번 피는 우담바라꽃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듯이 경허, 한암, 탄허 큰스님의 법맥을 이으신 각성스님은 팔만대장경의 정수를 마친 후 완벽하게 강해하신 한국불교전통학백년에 핀 동양학의 대 선지식이십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큰스님의 법보시를 받아 불법의 종지를 증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강의과목 : 강원 사교과과정 (금강경, 능엄경, 대승기신론, 원각경, 유식론, 선가귀감, 육조단경, 화엄경, 반야심경 약소)
2. 교수진 : • 서대원 박사(북경대 철학박사), • 한성조 교수(전 고대명예교수), • 조흥식 박사(전 성대불문과학장)
3. 개강일시 : 2008년 3월 15일(토) 오후 3시
4.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 제출서류 : 입회원서 1부, 사진 1매
6. 접수처 : 보명선원 TEL 02)2273-8484 / FAX 02)2276-0108 011-774-1416 / 011-9021-1680

[재가불자들의 탁마수행도량]

보명선원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82-7 대화빌딩 5층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5번출구 10M전방 첫 우측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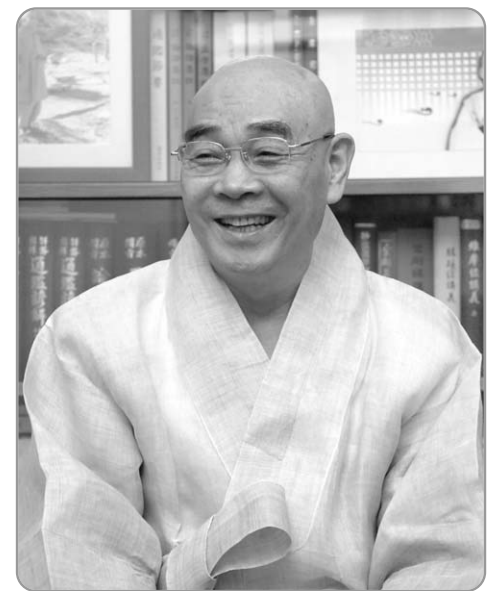
헤어 큰스님께 듣는 금강경

금강경 개강

개강 불기 2552년 3월 6일(목) 시간 오전 10시 30분

관음보살 점안식

날짜 불기 2552년 3월 9일(일) 시간 오전 10시 30분 장소 공생선원 대법당



※ 참선입문·경전반·참선반 3월 개강 대모집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서울시 도봉구 상문 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 02)900-2448 http://cafe.daum.net/zenmaster